

2012.08

다양성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다일공동체

www.dail.org

# 다일공동체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합니다.

다일천사병원 + 다일작은천국



#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다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디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의 나눔을 꿈꾸는 것은 마치 여름날의 소나기와 같이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해줍니다.

한국개신교가 세운 최초의 무료병원 다일천사병원이 개원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노숙인, 행려자, 무의탁노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나라와 언어와 피부와 종교를 뛰어넘어 제 3세계의 아이들의 아픈 곳 또한 만져주고 치료해 주는 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또한 처음 무료진료를 시작하며, 차가운 거리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던 꿈이 드디어 작년 다일천사병원 안에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작은 자, 임종자들을 위한 노숙인 쉼터인 '다일작은천국' 이 마련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매일매일 다일작은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입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쓴 뿌리로 고통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 화해하고, 가족들과 화해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마지막 생을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저 천국으로 평안히 가신다는 이야기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눈시울을 붉히게 됩니다.

맨 처음의 바닥정신과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을 본받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병원 문턱이 높아진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가장 소외된 분들을 위한 무료병원의 꿈은 시간이 변해도 계속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청량리역 광장 바닥에 주저 앉아서 라면을 끓이던 청년도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시다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끝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청량리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님과 자원봉사자들 덕분임을 기억합니다. 다일공동체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자원봉사자님들과 힘을 모아 더디지만 꾸준히 그 꿈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2012년 8월에

작은형제 **최) 원도** 목사 올림



\* 하나님을 기쁘시게

\* 이웃을 행복하게

\* 세상을 아름답게

## C O N T E N T S

- 02 Focus 다일천사병원 10주년 기획 돌아보고 내다보다 1
- 06 Review 제5회 7.7.7노블레스 오블리제
- 08 다일의 현장 작은천국
- 10 다일의 현장 탄자니아다일공동체
- 12 다일의 현장 캄보디아다일공동체
- 14 다일의 현장 미주다일공동체
- 16 아름다운변화 뽀얀이 이야기
- 17 포토에세이
- 18 다일 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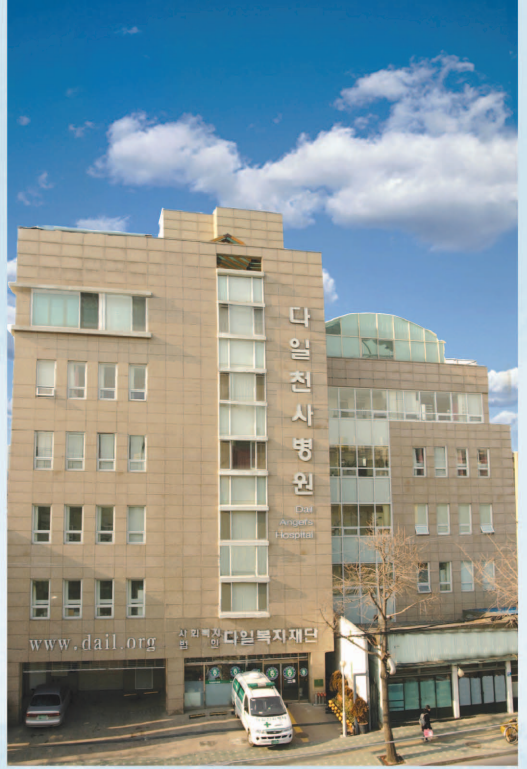


### cover story

초창기 무료진료시설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지나칠 수 없어서 시작된 천사운동, 그리고 지어진 다일천사병원.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아동들의 아픔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한 봉사자와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할 뿐임을 믿습니다.

후원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http://www.dail.org)





## 다일천사병원에 담긴 마음을 들여다 보다



### + 가난하기에 더 아픈 마음

1989년부터 무료급식소 운영과 함께 무료진료를 실시해 왔던 다일공동체는 병들어 죽어가지만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갔다가 받아주지 않아서 되돌아오는 뼈아픈 경험을 자주 하였습니다. 돈 한 푼 없고 아무 연고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밥퍼로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먹으러 오는 1백 50명, 많게는 2백여명의 행색은 날로 말끔해져 갔지만 거의가 병자였다. 초창기 다일진료소 나눔의 집에 찾아오는 이들은 결핵, 피부병, 무기력증,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등... 병은 가벼운 감기부터 회복불능의 만성질환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영세좌판상, 달동네의 어린이들, 무의탁 노인 등 가깝게는 동네사람부터 멀리는 인천이나 성남, 의정부, 수원 등지에서 588나눔의 집을 찾는 분들도 있었다. 1년에 단 한번이라도 병원 문턱을 넘어 보았을까?

주거지조차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형편에 병원을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의료보험증이 나 현금이 있을 리 없고, 심지어 주민등록조차 없는 경우도 더러 눈에 띄었다. 그러니 일반 병원은 물론이고 수용소 시설로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금방 완쾌될 것도 때를 놓치고 이래저래 시일이 흐르다 보면 합병증으로까지 번지면서 손쓰기가 힘든 경우가 흔한 일이었다.

# + 가난하지만 더 넓은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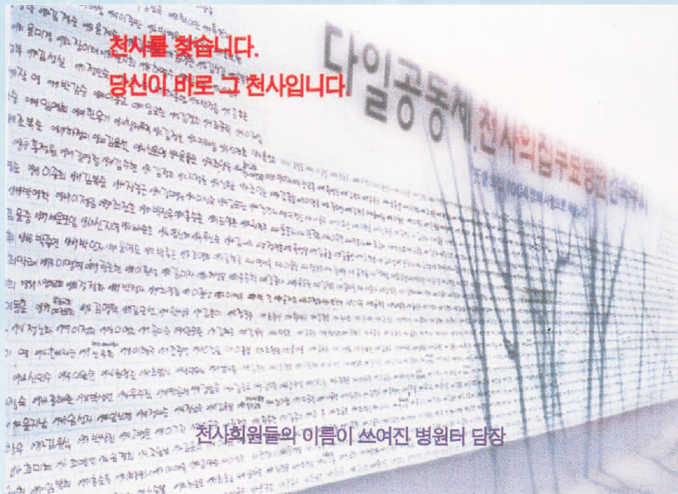
1993년 11월 청량리 뒷골목의 직업여성과 주민들이 모아준 4십7만5천원과 다일공동체 가족들이 모은 1천1백 만원이 병원 건축을 위한 최초의 헌금으로 주님 손에 바쳐졌습니다. 전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천사운동(1004명으로부터 100만원씩 모으는 운동)이 확산되었고, 국내외의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다일천사병원이 세워지기까지 10여 년이란 시간을 든든하게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 무료병원을 세워봅시다....

토요일마다 진행된 무료진료는 비좁은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 이웃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한계에 부딪혔다. 무엇보다 진료할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 고생스러웠다.

병마가 날을 잡아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평일에 찾아오는 이들은 속수무책이었는데, 다행히 주변의 동부시립 병원이나 성가복지병원 등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흥에 사는 한 자매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찾아가보니 목사님이었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사모님인 어머니는 중풍에 걸려있었다. 이분을 모시고 병원을 찾아갔다가 입원을 거절당하고 돌아오는데 '왜 교회는 많은데 무료병원 하나 운영하는 교회는 없나요' 라는 말에 실의에 빠져있던 나를 향해 들린 음성, '대책은 나' 라는 거였다....



이 일이 있는 후 공동체 중보기도 시간에 무료병원 세우는 건 큰 교회나 기업에서 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생각이 바뀌고 모인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한사람도 예외 없이 뭔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감이 넘쳤다. 가난한 우리들이지만 몸의 고단함과 마음의 기도로 무료병원 세우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하나님은 한 두 교회나 돈 많은 한 두 사람의 기금보다는, 소박한 사람들과 마음씨 착한 사람들의 더 많은 정성을 원하시는 것이 틀림없었다.

“우리부터 온 정성과 뜻을 기울이되 지금 여기 모여 있는 11명부터 1백만 원씩을 모아 봅시다, 어찌면 우리를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몸으로 실천해온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상주의자요, 몽상가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비난이나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아랑곳하지 말고 오늘 우리 가슴을 적셔 놓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열심히 뛰고 달리며 이 자리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쌓아봅시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한 달 후 다일가족들은 믿기 어려운 1천1백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다. 그리고 동네(588지역)포주 아주머니들이 모아준 4십7만5천원을 합산해 1천1백4십7만5천원이란 돈이 무료병원 설립을 위한 기금이 되었다.

## + 병원개원과 함께 다짐한 마음

2002년 2월2일 드디어 천사병원이 완공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감격스러운 개원을 했습니다. 나오는 고백은 감사뿐이었습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렸지만 1004명으로부터 100만원씩 모으는 운동인 천사운동은 기적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때까지 6차례의 천사운동을 통해 6,000여명이 후원자로 참여하였는데 그 무엇보다 대부분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정성이 하나씩 모여 만들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이제 맨 처음의 바닥정신과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을 본받아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병원문턱이 높아서 진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가장 소외되고, 그들에서 눈물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병원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치시고 사명 받은 우리들은 봉사하겠습니다.”

## + 천사들의 마음이 만드는 천사병원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서 건물 내부 계단 양쪽 벽면에는 병원을 짓는데 후원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곳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모아 생명을 지켜내는 곳입니다. 입원환자들의 식사준비, 간호보조, 청소와 빨래 등 대부분의 병원 살림 또한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원 당시 상근의사는 단 한명, 나머지는 모두 스스로 찾아온 의사들의 봉사로 진료가 꾸려졌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자원봉사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병원을 후원해 주었던 얼굴 없는 천사들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달린 마음과 아픈 마음이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돌아보니 치료된 건 마음

2003년 10월 4일 개원 1주년을 맞이한 다일천사병원은 의료보험 없이도 몸이 아프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가난한 이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워진 것도 기적이었지만 운영된 것도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원 후 1년간 병원을 거쳐간 환자는 1만 여명,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 노숙인들이었고, 4분의 1은 전 세계 22개국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로 몸만 다쳐서 오는게 아니라 한국사람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도 함께 가지



고 왔습니다. 따뜻한 간호를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는 치유 받고 사람에게 대한 신뢰를 회복해졌습니다.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환자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다일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은 전인적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 땅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다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인간존중 실현과 생명나눔축제의 삶을 위해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 사회적 관계까지 치유하는 넓은 의미의 치료가 이루어지길 소망해온 시간이 10년. 오늘 다시금 처음 마음을 돌아보고 내다봅니다.

문의 | 다일천사병원 02 2213 8004/www.dail.org

9월호에는 성별, 연령, 국가, 종교를 뛰어넘어 다일천사병원에서 만났던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돌아보고 내다보려 합니다.



## 2012, 세 배우와 한 목사가 함께한 아시아를 향한 꿈과 노래, 주말나눔콘서트



청량리에서 24년간 퍼진 밥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날아가 10년동안 변함없이 이웃들에게 생명의 밥이 되고 희망의 밥이 되었습니다. 매년 7월 7일 7시에 착한 나눔을 위해 이 시대의 진정한 나눔리더들이 모입니다. 올 해도 어김없이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모였습니다. 들어보세요! 아시아 다일비전센터 세우기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선뜻 내어 놓은 세 배우 박정자, 윤석화, 배해선 그리고 시인목사 북극곰의 노래 소리가 아시아의 이웃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여러분들도 작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내어 놓아 함께 부르는 노래에 동참해 보지 않으실래요~

왼쪽부터) 배해선, 최일도, 윤석화, 박정자

경기도 가평까지 먼 길을 달려오신 분들이 맞이하는 저녁식사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식사 전 아시아의 빈곤과 기아에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식사 후 드디어 입장입니다. 입장 시에는 부레옥잠 연필꽃이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흠~이 부레옥잠 연필꽃이로 말할 것 같으면, 캄보디아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작된 부레옥잠 수공예품 만들기 교육에 참여한 여성들이 정성을 들여 만든 것으로, 가정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요, 삶의 희망이 한 땀 한 땀 담겨있습니다.”



부레옥잠 연필꽃이

“세상엔 더 이상의 담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다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웃들이 꿈을 향해 걸어가갈 때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 다일공동체 협력대사 박정자(연극배우) -

“하루별이 \$2로 6~7명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사치일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꿈이 있다면 분명 내일도 있습니다. 밥을 나누는 것을 넘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계속 꿈을 꾸길, 혼자 설 수 있게 여러분이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 다일공동체 홍보대사 윤석화(연극배우) -

“I Have a Dream-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릴 적 이 노래를 부르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꿈을 이루어 가며 또 새로운 꿈을 꿈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여러분의 꿈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의 꿈을 캐스팅하겠습니다.”

- 다일공동체 협력대사 배해선(뮤지컬배우) -

“내가 받은 것이 많은 만큼 되돌려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삶 속에서도부터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19 그리고 80 낭독 중 -

캄보디아에 세워질 아시아 다일비전센터에 아이들의 꿈이 하나하나 담겨져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직접 그린 꿈에 여러분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의 시작과 함께 매년 진행되는 나눔의 장,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내년에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일공동체와 함께 아시아 빈곤퇴치를 위해, 아시아 다일비전센터 세우기를 위해 함께 하실래요?

이번 제5회 7.7.7 노블레스 오블리제 준비에 봉사로, 재능기부로, 후원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 땅 끝에서 부르는 노래

주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내리신 지상명령,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땅 끝이 어디일까? 아프리카 끝? 아메리카 끝? 아니면 저 빙하의 남극점이나 북극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각자의 생의 끝자락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생의 벼랑 끝에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하루 하루 온 몸으로 막아내느라 기진맥진해 있는 분들, 이 분들이야말로 땅 끝에서 계신 분들이 아닐까요?

얼마 전, 우리와 함께 지내던 권00님을 저 하늘 큰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별 생을 살아내면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극에 달했던지, 불과 40년 생을 마감하고 우리의 환송을 받으며 저 하늘 큰 천국으로 훨훨 날아갔네요.

권00님은 엄마를 너무 너무 보고싶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끝끝내 죽어가는 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이 숨을 거두기 전, 어떡하든 엄마와 화해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딸이 엄마를 보고싶어하니 한번 만나시지요.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돌이킬 수 없는 한으로 남을 텐데요 ....”

간곡하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하듯 말하였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좋은 데 가겠지요, 뭐... 수고 많으셨어요.”

마치 먼 동네 다른 사람 이야기 하듯, 전혀 조금도 동요되지 않는 음성이었습니다. 혹시 친엄마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저... 친엄마 맞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역시 전혀 동요되지 않는 음색으로

“네, 친엄마 맞아요.” 라고 대답하였다.

아... 세상에.... 저런 엄마도 있구나....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 못 하는 일들이 훨~훨 더 많은 것을....



작은천국에 울려 퍼졌던 악기들의 어울림



문인선교회 하모니카 연주

맞아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날아오는 천사들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매주 화요일이면 클리닉 진료시간을 접고 천사병원으로 달려와서 벌써 10년째 봉사하시는 의사선생님! 매주 목요일이면 사업도 잠시 내려놓고 친구들과 찾아와서 바지 걷어 부치고 화장실 청소며 구석구석 내 집처럼 깨끗이 청소해주는 젊은 집사님 부부! 다들 주말만 되면 영화관이다 당구장이다 놀러다니느라 바쁘건만 토요일마다 찾아와서 소리없이 봉사하며 용돈까지 털어서 후원금으로 내놓곤 하는 대학생! 공과대 교수 신분으로는 봉사활동 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배웠노라며 열심히 발반사요법으로 봉사하시는 대학 교수님 등등....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천사들을 통하여 땅 끝에서 계신 분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구요?

궁금하세요? 그러면... 한 번 와서 직접 불러보세요. ^^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글/ 이명현 원장(다일작은천국)

# Tanzania

아프리카 땅에서 이웃을 만나다.

- 탄자니아 다레살람 쿤두치 지역 -



탄자니아에 도착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에 NGO 등록과 함께 사역지를 찾기위해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지만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만났던 다레살람 쿤두치 지역의 이야기를 나누려합니다.

'바가모요 road' 옆에 있는 '쿤두치 채석장' 인데요, 쿤두치는 오른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다레살람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채석장은 다레살람에서 가장 큰 채석장으로 건설에 필요한 돌을 채취하는 곳입니다. 전기도 물도 공급되지 않는 이곳에 교도소를 다녀온 전과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수도 시설이 없어 차가 뽕뽕 지나다니는 큰 도로를 위험하게 건너다니며 양동이로 물을 퍼 나르거나 마을 안에서 한 양동이에 탄자니아 돈 100실링(한화 70원)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을 채석장에서 하루 버는 일당은 \$1 미만입니다. 한 개의 플라스틱 양동이에 망치하나 들고 손으로 일일이 깬 돌을 채우면 300실링(한화 220원)을 받습니다. 하루 평균 다섯 양동이를 채우며 1,500실링(한화 1,100원)을 번다고 합니다. 돌 깨는 곳에 돌가루가 얼마나 날리는지 뛰어노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밀

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얗게 됩니다.

그리고 채석장에서 4~5Km를 걸어 간 곳에 있는 MTAKUJA SCHOOL(음타쿠자 초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학교에는 1학년~7학년 까지 1300여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각 학년에는 3개의 반이 있으며, 한 개의 반에는 70~80명의 아이들이 뽀뽀하게 앉아서 수업을 받습니다. 어느 반은 책상이 모자라 바닥에 앉아 수업 받는 아이들도 상당수 입니다. 선생님의 수가 모자라서 선생님들이 반을 돌아가면서 수업을 합니다. 1300명의 아이들 중 고아이거나 편모 편부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200여명 이상이고 가장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교감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이들에게 있어 어려운 점이 무엇이나고 묻자 주저 없이 먹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대답합니다. 아침 7시 15분까지 등교를 하여 8시 부터~오후 2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는데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 전날 저녁도 못 먹고 아침도 굶습니다. 그래서 한 class당 평균 10명의 아이들이 결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밥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파서 학교까지 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시장에서 팔고 남은 생선 대가리와 내장 찌꺼기를 뒤져서 끓여 먹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라도 먹지 못하고 아침 일찍 학교에 오는 아이들 중에는 오후 2시까지 공부를 다 하지 못 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성장기인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 설사, 말라리아 등의 질병에 잘 걸립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귀가 조치를 하지만 병원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배가 고픈 아이들 같지 않게 우리를 향해 해맑게 웃습니다.

이 아이들이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고 학교를 결석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한편에서는 영양과다로 비만이 문제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음식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탄자니아 알아보기

탄자니아는 대부분 아침을 10시에 차와 함께 '만다지(삼각형 밀가루 튀김)나 '짜파티'를 먹고 점심은 오후 2시 넘어서 먹으며 저녁은 해가 지면 먹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아이들 대부분이 하루 한 끼 정도만을 그것도 아주 간단히 먹는다고 합니다.

글/ 변창재 원장(탄자니아다일공동체)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 THE WAY

## 새 길, 새 땅을 향하여

뿌억 마을이 환해 졌습니다.  
거추장스런 머리카락을 자르고 깔끔하게 이발을 한 것처럼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는 시원한 길을 이제는  
뿌억마을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을 새로 만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백석대학교 30명의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참여하여그들과 주민들의 땀의 수고로 아름다운 길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삽질 한번 해 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손에 물집이 잡히고 더위와 싸우며 착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설사병에도 굴하지 않고 매일 오후 노력봉사로 주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백석대학교 학생들.

새 길이 놓이기까지 땅을 다지고 흙을 붓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야 했습니다.

# Cambodia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도 잘라야 하고 개인 소유의 땅도 일부는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주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뢰피해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 Pourk 1138가정, 8천여명의 주민들이 사는 평화로운 동네. 사는 곳은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 마을에는 정이 넘치는 곳이 바로뿌억 마을입니다. 그곳에 다일 예배당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는 뿌억 마을에 우물을 파고, 집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집을 지어드리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을 기를 수 있게 지원해 드리며 함께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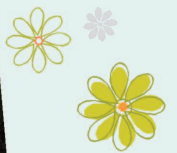
마을 한 가운데 있는 다일 예배당! 예배당까지 오는 길이 어찌나 진흙탕인지 다리를 잃고 팔을 잃었던 그들 인생의 아픔처럼 험하기만 했던 길, 움푹움푹 패인 웅덩이 때문에 비가 오면 차가 꼼짝도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새 길을 위하여 자신의 논 귀퉁이를 포기하고 밭등만 덩그러니 남아 장애물이 되었던 나무지만 자신의 것이기에 그냥 두었던 나무들도 이참에 잘라내는 '아름다운포기' 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길, 뿌억 마을의 주민들 모두가 삽과 괭이를 들고 나와 참여했기에 더 의미있는 길이었습니다. 생명과 희망이 있는 길, 이제 아이들은 이 길을 더욱 힘차게 뛰어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로 편안하고 시원해진 길처럼 뿌억 마을에 사는 모든 이들의 인생 또한 이렇게 널찍하고 평탄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글/ 이옥주 부원장(캄보디아다일공동체)

\* 길 닦기 1차 공사가 마무리 되었지만 앞으로 톨러로 길을 단단히 해야 하는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100의 후원자 100명을 기다립니다.  
이 길을 만드는 소중한 희망으로 함께 길을 놓아주십시오

국민은행 467701-01-152018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USA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미주다일공동체 밥퍼 팀장 제인님 인터뷰



미주다일공동체 밥퍼 팀장 제인님

1. 반갑습니다. 미주다일공동체 밥퍼에서 열심히 섬기신다는 이야기가 서울까지 들려옵니다.

다일공동체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네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다일공동체에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 엄마가 오래전부터 미주다일공동체를 섬기시는 모습과 일들을 많이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자라면 엄마, 아빠 같이 훌륭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2. 미주다일공동체 밥퍼 팀장으로 결단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 작년(2011년)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 선교를 엄마와 함께 다녀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을 보



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주 다일밥퍼가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는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 미주에서도 청량리 밥퍼와 같이 거리의 노숙인, 부랑인들에게 식사를 나누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곳도 한국과 같이 생각보다 많은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섬기고 있고요. 매번 400명분 음식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 밥퍼에서 밥을 나누며 감동적인 일이나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시면 나누어 주세요.**

- 사실 캄보디아에서 섬겼던 그런 감동적인 느낌은 없었습니다. 미국과 너무 많이 다르기에... 그렇지만 느낀 것은 여기서도 밥 퍼주는 일뿐만 아니라 이 밥퍼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5. 미주다일공동체 밥퍼 팀장으로써 꿈꾸는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 네, 첫째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이 밥퍼에서 노숙인들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섬기는 것이고요. 둘째, 소망은 이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밥을 퍼주며, 다양한 식단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와 함께 빛도 없이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박종원 원장(미주다일공동체)



400명분 샌드위치를 만드는 중

아름다운 변화  
뽀안이 이야기



# 한 아이를 끝까지 살리고픈 마음...

## 캄보디아 척추측만증 소년 뽀안이(11세)를 기억하시나요?

캄보디아 소년 뽀안이네 집은 물이 참 많은 수상빈민촌에 삽니다.  
그러나 정작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없습니다,  
더러운 물로 인해 척추측만증이 발병되었고, 심하게 휘어진 허리는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도, 똑바로 걸을 수도 없었고,  
폐기능 감소, 신체변형, 통증 등의 2차적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 제일하고 싶은 건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

다일공동체와의 만남 그리고 첫 번째 수술 후 뽀안은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간 뒤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 논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열악한 환경, 관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겨  
2011년, 2차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 뽀안이가 성장함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

척추는 보통 성장과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서 뽀안이의 척추에 고정된 스크류는  
뽀안이가 자람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정기적인 검사 또한 필요합니다.  
2012년, 3차 검사 및 수술을 하러 뽀안이가 옵니다.  
한 번의 수술로 눈에 띄게 좋아진 뽀안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3차 수술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다일공동체는 한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살리고자 합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담아주세요

후원금은 뽀안이에게 필요한 만큼 전달되고 BCP-아름다운변화프로젝트를 통해  
의료비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달됩니다.

### | 후원안내

국민 467701-01-128318 (사회복지법인다일복지재단)  
문의 02. 2212. 8004 [www.dail.org](http://www.dail.org)

다일공동체에서는 뽀안이가 지속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뽀안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인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 주세요!!





## 설곡산의 아침 햇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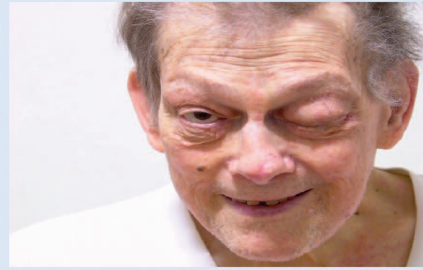
뒷산을 외롭게 지키는 목청 큰 장닭 한 마리의 "꼬끼오! 꼬끼오!!"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설곡산의 새벽! 그리고 날마다 신비스럽게 펼쳐지는 아침햇살의 아름다움은 이루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에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로 화답을 하고, 산위에서 산들바람까지 불어와 줘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겨줍니다. 설곡산에 오셔서 이른 아침의 풍경부터 서산에 지는 저녁노을을 보신 분들마다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 살면 오래 앓던 병도 다 나을 것만 같아요."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아름다워요"  
 "자연치유센터에 머물고 싶은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요"  
 "여기 있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저절로 치유되고 회복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침묵의 성지요, 치유와 회복의 동산 설곡산 다일공동체는 자연 속에서 심을 얻고 피정을 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1년 365일 항상 열려있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지만 하면 됩니다.

- 금년 여름에는
-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138기(8/6~10)
-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  
(8/13~18)
-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  
(8/20~25)
- 한 달 내내 계속 이어집니다.

설곡산에서 맞이하는 아침의 신선한 감동과 매일예배, 매달의 다일영성수련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설곡산 다일공동체(031-585-2004)로 지금, 문의해주세요! 매일 두 번 청량리에서 설곡산까지 오는 셔틀도 있습니다. (오전10, 오후7시 출발)



01 <다일복지재단> 제5회 777노블레스오블리제

02 <다일천사병원> 미국으로 돌아간 브렌트씨

## 국내분원소식

### 01 다일복지재단

#### 제5회 777노블레스오블리제

7월 7일 7시, 세 배우 한 목사가 아시아의 빈곤퇴치와 그 일에 있어서 중심지로 사용될 아시아 다일비전센터를 캄보디아에 세우는 일을 함께 꿈꾸며 주말나눔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재능나눔을 통해 좋은 공연을 마련해주신 박정자, 윤석화, 배해선님과 아시아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02 다일천사병원

#### 미국인 브렌트를 위한 목욕봉사

피부건선증과 림프부종으로 거동이 불편한 미국인 환자가 치료를 받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방문 재가 목욕,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한 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신지가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 주(7/14) 방문을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웠던 고향땅에서 빠른 쾌차하시길 기도합니다.

#### 협력병원 초이스이비인후과

초이스 이비인후과의원이 다일천사병원의 협력병원이 되었습니다. 다일을 찾는 분들이 삶의 고통의 무게로 질병의 고통은 잊고 살아온 분들에게 귀한 치료의 통로가 되어주신 최석주 원장님 감사합니다.

### 03 다일평화의마을

#### 묵안리 텃밭

봄부터 파종하고 여름이 오기까지 가뭄과 싸우며 가꾸 낸 채소들로 영성수련을 비롯해서 다일공동체를 찾는 분들에게 유기농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에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길러낸 유기농 음식과 순전한 예수 중심의 삶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묵안리 다일평화의마을에 찾아오세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손님맛이의 즐거움

묵안리에 개인피정과 단체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 즐겁게 섬기고 있는 묵안리 가족들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벗님들께서도 도우미로 섬겨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올 여름 묵안리에서

도우미로 섬기시며 더 깊은 영성생활을 경험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 04 밥퍼나눔운동본부

#### 김수현팬클럽 '유카리스' 봉사팀

해를 품은 달의 주인공 김수현씨의 팬클럽 '유카리스'가 7월 17일(화) 밥퍼 봉사를 왔습니다. 김수현씨 팬클럽답게 배우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던지요^^ 그리고 가실 땀 따뜻한 마음을 담아 후원금도 전했습니다. 다음엔 김수현씨와 함께 오세요~

#### 연예인 정선경의 뜻 깊은 기념일 봉사

정선경씨는 둘째 딸 유주의 돌을 뜻 깊은 나눔으로 기념하고 싶은 마음에 밥퍼를 찾았습니다. 7월 23일(월) 아이와 함께 찾아온 정선경씨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준비를 하고, 어르신들은 마음을 모아 아이의 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린 유주가 어르신들 곁에서 밝게 웃자 모인 분들의 마음도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03 <다일평화의마을> 주님의교회 성경공부팀 방문

04 <밥퍼나눔운동본부> 김수현팬클럽 '유카리스'

05 <설곡산다일공동체> 제4기 침묵묵상수련

## 05 설곡산다일공동체

### 제4기 침묵묵상수련

김연수 사모님께서 인도해 주신 제4기 침묵묵상수련을 통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과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크게 감사하며 마쳤습니다.

### 또 오고 싶은 설곡산

바야흐로 영성수련과 각 교회들의 여름 수련회 그리고 피정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관리 무엇보다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은혜에 놀랍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좋은 곳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 매일 예배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매일예배에서는 예배예전의 갱신을 통해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추구하고 나사렛예수의 영성을 삶에 실천하고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수, 영성지도자 영성수련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학교수 및 영성지도자 분들의 영성수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알고 있던 것과 지식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으며, 학기 중에 쌓인 피로를 아름다운 자연에서 해소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06 예방어린이집

### 친자연화프로그램 - 텃밭에서 감자, 토마토 수확하기

지난 7월 9일, 예방어린이집이 가꾸고 있는 텃밭에 우리 예방친구들이 심었던 토마토와 감자가 무럭무럭 자라서 수확할 시기가 되어, 그 동안 교박교박 물을 주며 기다렸던 만큼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감자와 토마토를 수확해보았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조심 수확을 끝내고 친구들이 딴 토마토와 감자를 보며 '어떤 맛일까?' 궁금해 하기도 하고, 무럭무럭 자라주어서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 주치의 협정병원연계 유아위생교육-손씻기

7월 5일에는 예방어린이집과 주치의 협력병원으로 체결되어 있는 협정병원에서 유아 위생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선생님께서 손씻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도 해주셨고, 올바른

게 손을 씻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위생교육을 통하여 우리 예방친구들이 손씻기를 통해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현장학습 - 성내천 물놀이장

7월 12일, 7월의 주제 여름, 물놀이와 연계하여 4세, 5세반 유아들이 성내천 물놀이장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물놀이 전 준비체조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과 물총놀이도 하며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물놀이 후에는 엄마가 짜주신 맛있는 도시락과 간식을 먹으며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무럭무럭 자라났답니다.

### 7월 생일잔치

7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도 생일을 축하해 주던 친구들도 모두 함께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닮아 지혜롭게 지랄 수 있도록 감사기도를 드리며, 친구들이 준비한 선물을 받으며 즐거운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매일 맞이하는 생일잔치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되니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06 <예향어린이집> 친자연화프로그램



07 <네팔다일공동체> 희망이 싹트는 희망교실

## 해 외 분 원 소 식

### 07 네팔다일공동체

**네팔다일공동체 홍보대사 최영선 집사**  
샌디에고에서 주네팔미국대사관에서 일하는 딸을 만나기 위해 오신 최영선 집사님은 한 달 넘게 매주 정기적으로 밥퍼 봉사를 오시는 분으로 이번에 네팔다일공동체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팔다일공동체를 알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함께 할 수 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팔의 집시 아이들을 위한 희망교실**  
네팔과 인도의 국경지대인 띠라이(평지) 지방과 인도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온 분들이 우리 빈민촌 마을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가촉천민으로 가난과 무지는 아이들에게 계속 되물림됩니다. 이들에게 희망교실을 개설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희망을 싹틔울 심고, 위생교육을 통해 깨끗한 생활을 몸에 익힙니다. 깨끗한 얼굴만큼이나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진 것이 참 감사합니다. 희망교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통해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08 베트남다일공동체

#### 포스코CT 허남석대표 밥퍼 봉사

포스코CT 허남석대표가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밥퍼 봉사를 오셨습니다. 3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라면 1box씩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밥퍼는 동네 잔치날이었습니다.

#### 대우인터내셔널 박경원상무(법인장)와 직원들 봉사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봉사와 \$100을 후원하는 대우인터내셔널의 박경원상무와 직원8명이 밥퍼 봉사를 하였습니다. 박경원 상무는 밥을 푸면서도 식사하는 분들이 식사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며 봉사하였으며, 같이 참여한 현지직원들도 웃음 가득한 얼굴로 즐겁게 봉사했습니다.

#### 우리은행 최철우 지점장과 직원 봉사

우리은행 최철우지점장과 직원들과 방학을 맞이한 자녀들이 밥퍼 봉사를 왔습니다. 봉사하는 모습 취재 차 방문한 한국의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도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 RISS 한국학생 5명 봉사 건

호치민에 있는 RISS(르네상스 국제학교 사이공)의 한국학생 5명이 방학을 맞이하여 밥퍼 봉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소식지와 브로슈어를 통하여 밥퍼를 알게 되고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 극동대학교 봉사

극동대학교 송국섭교수님과 학생 15명이 해외탐방 차 베트남에 왔다가 밥퍼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 \$500후원도 해주시며 한국에 돌아가 밥퍼 사역을 적극적으로 알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땅끝교회 밥퍼 봉사

땅끝교회(호치민 푸미흥, 한인교회)의 부목사님과 중고등부 학생 13명이 밥퍼 봉사를 왔습니다. 봉사를 하며 식사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봉사하기를 희망하며 돌아갔습니다.

#### 여주대학교 장영훈부총장 외 37명 봉사

여주대학교 장영훈 부총장 외 교수님과 총학생회 학생 37명이 밥퍼에서 봉사와 함



08 <베트남다일공동체> 봉사하는 즐거움 밥퍼

09 <중국다일공동체> 양자선교회 두 번째 방문

10 <필리핀다일공동체> 와~상수도 설치사업

께 하루 배식비와 학용품 후원도 하고 다  
시금 봉사하겠노라며 돌아갔습니다.

## 09 중국다일공동체

### 양자선교회 두 번째 방문

다일의 든든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 회원이  
신 양자선교회의 허에스더, 주다비 목사님  
께서 8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두 번째 방  
문하여 아이들에게 매일 맛있는 특식을 준  
비해 주시고 주방의 비품, 아이들 자전거,  
장난감까지 구입해 주셨고, 아동결연도 약  
속하고 가셨습니다.

### 경인교대 학생 교육봉사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봉사를 준  
비해온 경인교대 학생들과 인솔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차분히 아이들  
과 수업하는 것을 보니 역시 한국 초등학  
교 예비 선생님들로서 손색이 없음을 감  
탄했습니다.

### 힘내라 수험생

고3수험생 최예화가 대입시험을 잘 마치고  
합격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하이버,  
하이타오, 야오쭈양, 왕조선이 중3 고입시  
험을 잘 마쳤습니다. 특히 왕조선은 높은

점수를 받아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 인생을 배우며 성장 중인 한연이

대학졸업반 한연이는 중국 서쪽(훈춘서  
기차로 50시간 거리)에서 여행가이드 예  
비 실습 중입니다. 먼 곳에서 매일 아름  
다운 풍경들을 전해 주어 아이들과 함께  
같은 중국땅인데 너무 다른 문화와 풍경  
에 놀라고 있습니다. 연이는 실습을 하며  
인생을 배우며 성장 중입니다.

### 비자발급을 위해

다일어린이집 마쎈, 최원삼의 미국비자  
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  
급이 잘 진행되어 아이들이 더 넓은 세  
상에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10 필리핀다일공동체

### 지붕개량사업

지금까지 세 가정의 지붕을 양철함석으로  
개량하였습니다. 이젠 비가 쏟아지는 밤에  
도 단점을 이룬답니다. 후원해주신 천사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정 지붕개량비:20만원(7,000페소)

### 상수도 설치 사업

갓난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수도관에 내야  
할 상수도 설치자금이 없어서 물 없이 살  
고 있는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강  
효숙 권사, 윤정혜 권사와 아름다운 사람  
들에 의해 벌써 세 가정이 상수도를 설치  
했습니다. 첫 가정의 마당에서 물이 쏟아  
질 때 감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제서린, 마리엘, 나나이 레피 세 가정에  
수도 설치)

### 영산대학교 봉사

영산대학교 봉사단원 24명이 7월 2-4일까지  
3일간 봉사했습니다. 유치원생 가방과 크레  
파스를 선물하였고 풍선아트, 사물놀이 등으  
로 어린이들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또 유치원 외벽의 페인트를 새  
로 칠 할 수 있는 후원금도 전달하였습니다.

### 예배의 부흥, 새로운 소망

성경책을 후원받아 배포한 후 부터는 어린  
이 찬양 예배가 가득차서 이제는 반지하의  
밥퍼 공간이 좁고 비좁기까지 합니다. 그  
럼에도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청  
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동네 어른들도 점  
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다  
일교회가 가비떼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다일의 자원봉사자"



연금 저희가 담당합니다. 식판도 저희가 담당합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게 맡겨만주세요!!



사람과 일을 연결해 주고, 사람과 사람도 연결해 주는 따뜻한 사람인 직원들이 만드는 따뜻한 점심.



권사님들~ 사랑이 넘쳐서 사랑의 교회인가요? 밥퍼 어르신들께 밝은 미소와 사랑이 한가득 전달 되었답니다.



우리는 탤런트 김수현의 든든한 팬클럽 이자 든든한 밥퍼 봉사자!



대한민국의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일동.



설거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숙련된 손길의 오륜교회 권사님들이 최고야!



세상에 빛을 발하는 태평의 신입사원들 봉사를 마치고 난 뒤 더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어머나! 수련회를 서울로 와서 봉사로 이 옷을 섬기는 전주하나교회 청년들 멋제!





#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2012년 6월 23일~7월 25일 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 7월 신규후원

(낙원부페분식)최미, (주)우리편드서비스, 강세리, 강영아, 강현석, 고명애, 권효순, 금옥초등학교최정자, 김남희, 김명숙, 김명숙, 김미조, 김서운, 김성빈, 김성준, 김성희(대지), 김수현(박혜란), 김영애, 김예리, 김용진, 김은경, 김은진, 김지훈, 김진숙(박혜란), 김행자, 김효영, 남영철, 대운보습학원, 기문보습학원(최하연), 도숙희, 동명주, 무명, 문민수, 문정구, 문진아, 민충순, 박문희, 박상환, 박신자, 박중순, 박태국, 백귀자, 백장용, 변은경, 서재근(박혜란), 서현자, 서혜자, 설은경, 성동교회, 송재호, 송지연, 수원중앙복지재단, 신상호, 신상훈, 신유호, 신창현, 심남수, 안영인(박혜란), 양우리복지회, 양세영, 온인주(온나래), 원주연(박혜란), 유영주(박혜란), 유카리스, 유수경, 유중순(박혜란), 이광실, 이미지, 이선주, 이성호, 이수정, 이영림, 이옥자, 이은주, 이정화, 이정희, 이준, 이춘신(온나래), 이필재, 이학순(박혜란), 이형권, 임혜민, 장하늘, 전영택, 전인서, 정경은, 정종연, 정홍선, 제빛나, 조경민, 조현정, 주석순.이민자, 주식회사 더트리니티홀딩스, 찬양하는교회박중주, 최가희, 최미영(박혜란), 최미옥(박혜란), 최상래, 최수경, 최옥희, 최은희, 최진호, 최화자, 최희숙, 추희경, 한광수(포콘스), 한상소, 할렐루야교회안수집사3조, 함도연, 홍성덕, 홍순남, 홍종미, USFI김창권, USFI임창수, 박중호

### 밥퍼나눔운동 후원

[후원금]

옥합선교회, 흥경화, 서울메트로, 이계 안전의원, 소망봉사팀, 금옥초등학교, 김수일, sk텔링크, 공무원연금공단, 박종일, 일산은혜교회, 이종옥, 동안교회, 지혜인, 최성봉, 조혜인, 최달선, 홍남숙, 심영주, 김보나, 서장선, 엠엔글로벌, 양순화, 강찬훈, 대한지적공사 동대문지부, 미광개발, 황귀중, 양우리복지회, 최주영, 최상래, 김길욱, 오륜교회4권사회, 에에엠지코, 최경근, 문정구, 이정화, 수도권산악회, 쌍용양회공업, usfi김창원, usfi임창수, 박중호, usfi, 김성철, 국방홍보원, 이일옥, 러브피플, 수도권산악회, 태광(흥국화재, 흥국생명), 홍종미, 이영숙, 서울석유, 권해진, 윤현숙, 정신남, 현대상선, 우리편드서비스, 외환은행나눔재단

[후원물품]

6/20 서울우유 우유 1008개  
6/21 동대문적십자 빵 400개  
6/2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래시장상품권 100장  
6/25 가나안덕 오리 120봉지  
6/27 두리반 김치 1box  
7/3 마장동 돼지고기 160근, 무명 수박 11통  
7/4 무명 김치 10kg  
7/6 한국수자원공사 온누리 상품권 100장  
7/12 노경애 고추 10kg  
7/14 동대문적십자 빵 400개

[옷퍼후원]

이경선, 김현주, 박영금, 박숙자, 유연옥, 정인선, 선일통상

### 다일천사병원/다일작은천국

[후원물품]

도은진(과일), 장상은(마스크외), 홍수희(과자류), 김윤순(빵), 박혜란(오피레), 박문정(생필품류),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돌코락스), 한국푸드팜(유산균플러스), 제일제당(쌀알정)

[후원금]

조현정, 이수정, 송재호, 이형권, 김성빈, 양세영, 박영하, 이지환, 황희창, 이금순, 한평재, 김예슬, 할렐루야교회집사님, 무명

### < 해외분원 >

#### 중국다일공동체

김성재(Obey & Praise), 시카고 스마일, 스마일피기닝, 평생 후원자, 대전 동안교회, 이은준, 한기모, 지춘란, 다일교회, 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터 목사), 영광제빵(빵), 경인교대(교구)

#### 베트남다일공동체

[나눔회원]

대우INTERNATIONAL, 포스코베트남(600만동), 보민건설 심재호, 사이공한인연합교회, 한희준(300만동), 아리랑화학, 여주대학교, 포스코CT(\$1,797.80), 포스코베트남(300만동), 우리은행 호치민 지점(6,285,000동), 극동대학교(\$500), 한글로벌(한희준 300만동), 송채린

[정기후원]

정영숙, 전기성, 송윤서, 홍지송, 추원미

[물품후원]

서림베트남(술가라100개+포크100개), 도넛도넛(도너츠235개), 포스코ICT(쌀 40kg+바나나), 여주대학(물감+크레파스+색연필), 신은지(우유120개+빵40개) [자원봉사자] 포스코베트남, 조윤현 김대업 최진혁 우정재 외 30명, 포스코ICT 허남석, 이창복, 김광석, 정형선, 박용남, 장준화, 이인규, 이택희, 김성태 외 10명, 대우INTERNATIONAL 박경원, 최시호, 이준석 외 6명, 포스코 SOUTH ASIA 서도석 외 6명, 설세란, 설선호, 전경주, 이수빈, 신은지, 박종원, 최원석, 한정민, 송건희, 김연신, 최희선, 배송희, 박은, 전아리, 김경빈, 임예민, 최하승, 유수현, 나석준, 나현준, 임지규, 신승환, 이건희, 극동대 송국섭 외 15명, 여주대 장영환 외 37명

#### 필리핀다일공동체

필리핀PTS한인교회, 지일환, 문정호, 임혜민, 김건희, 한상소, 신동환, 강효숙, 조연희, 박혜순, 제양환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천사들께 감사드립니다.

#### 네팔다일공동체

김미나(\$100), 이상현, 이순옥(\$300-우물1기), 광주서림교회 청년부 단기선교팀(11,680루피), 전주중앙교회 청년부 단기선교팀(\$100), 신선교 가족(\$700), 온세교회, 최영선(배식비+청소 도구일체+의자8개+기타물품), 주복교회 단기선교팀(18,000루피+축구공2개+옷40벌+축구용품) 신규대학 봉사팀(치솔300개+치약400개+기타물품)

다일은 여러분의 맘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 ARS 060-708-1588

###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 1. CMS(자동이체)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 •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30%(최대 3만원)가 다일공동체에 가입회원님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 • 사랑의 쌀 환환

한번만 쓰고 폐기하는 1회용 환환 대신에 개업식, 결혼식, 장례식 등의 애경사에 기존의 꽃 화환 대신 사랑의 쌀 화환으로 축하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나눔쌀 상품권을 전달하여 4인 가족이 2달이상 충분히 먹을 만큼의 나눔 쌀이 다일공동체에 주문회원님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미주지역 후원계좌

-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 은행번호 : 06119794
- 계좌번호 : 1510014622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34001270347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 국내후원계좌 국민은행 : **467701-01-053115**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mailto: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htp7749@dail.org](mailto: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minjuna8@dail.org](mailto:minjuna8@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emhok@dail.org](mailto: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mailto: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mailto: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95-999-1004

E-mail [lplhome@dail.org](mailto: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855-12-808861

E-mail [histime@dail.org](mailto:histime@dail.org)

후원계좌 사업팀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프놈펜 국민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278 63-927-560-7346

E-mail [gracekeong@dail.org](mailto: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1-384069

E-mail [babperdail@hanmail.net](mailto: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669 255-786-740-003

E-mail [bcj337@dail.org](mailto:bcj337@dail.org) / [dail8004@gmail.com](mailto:dail8004@g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5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영성수련



주말, 아세찾기(주아찾기)는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을 위한 다일의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입니다.

**8월** 8월 06일~8월 10일 아름다운 세상찾기 138기  
8월 13일~8월 18일 작은예수 살아가기 43기  
8월 19일~8월 25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15기

**9월** 9월 14일~9월 16일 축복수련(Blessing 영성수련)  
9월 17일~9월 21일 아름다운 세상찾기 139기

**10월** 10월 12일~10월 14일 주말, 아름다운 세상찾기  
10월 31일~11월 04일 유럽, 아름다운 세상찾기 6기  
(프랑스 파리에서)



### 인도 |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K-TV 멘토링 토크 진행  
CBS-TV 새롭게 하소서 진행

저서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도서출판 다일)  
마음열기(중앙M&B)  
더늦기전에 사랑한다 말하세요(동아일보사)  
행복하소서(위즈덤하우스)

신간

밥心(마음의숲) 등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 H: 010)6375-8004**

설곡산다일공동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단체와 교회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피정을 통해 심과 사색과 명상 및 침묵기도를 자유롭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1-0166-0367-83 예금주:이태형)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밥퍼  
Babfor

푸드뱅크와 자원봉사자 은행이  
여러분의 정성으로 세워집니다.

D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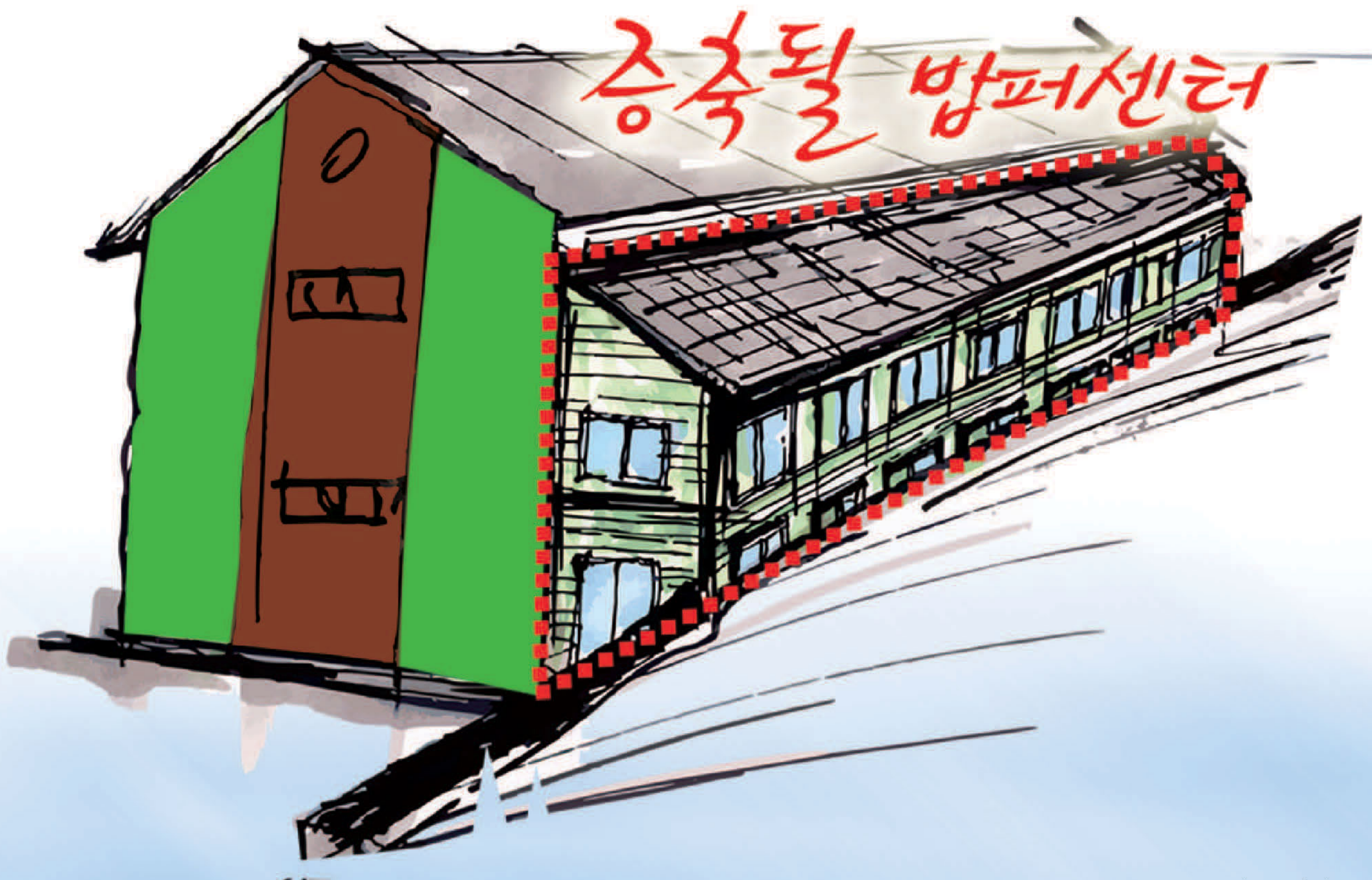
기금

5천만원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후원문의 02-2212-8004 다일복지재단

후원계좌 467701-01-099432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www.dail.org